

W_F_019

따라비오름 상여소리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2리 태흥마을회관, 김선희 조사.
오명옥(남, 1934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조사자] 도체빗불은 안 들어봤수과?

[제보자] 도체빗불도 들어봤지.

[조사자] 사연을 골아줍서.

[제보자] 도체빗불이라는 게 나는 본 일이 없는데 옛날 어른들 곤는 거 들어보면은 천리
하려 밤에쯤 저 어디 올라가 있으면은, 따라비오름이라고 잊어. 이 방향에 잊어.
따라비오름 뒤우로 영장 메가는 소리가 난다.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 봤고.

[조사자] 영장 매가는 소리 나가면 도체빗불이 보이는 거마씸?

[제보자] 그게 헛게라는 거지. 옛날 영장 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낫고. 그런 소리 들린다
고 해낫는데 나는 못 보고. 나는 우리 4·3사건 때 도체빗불이라고 해서 팔룡팔룡
가는 거 보면은 '저 도체비 낫저.' 했는데 나 눈에 보면은 불란지라.

[조사자] 건 뭐꽈?

[제보자] 불란지. 두메기 닮은 거. 나방 닮은 거. 나가 보건데 그건 불란지인데, 딴 사람들
보기에는 도체빗불이렌 헤여.

- 핵심어 : 도체빗불, 천리, 따라비오름, 영장 메가는 소리, 헛게, 팔룡팔룡, 불란지